

광주예술고 학과 통폐합 사고 갈등

시교육청 5개 학과→3개 축소 추진 “경제논리로 통폐합 안된다”

학교·동문회 국민청원 등 강력 반발

2021년 3월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인근으로 이설되는 광주예술고등학교를 둘러싸고 광주시교육청과 학교 동문회 측이 갈등을 빚고 있다. 이설에 맞춰 학과 개편(통합)이 나서려는 시교육청과 현 학교 체제를 지키려는 학교·동문회 측 입장이 맞서면서다.

시교육청은 이설 시기에 맞춰 공사를 매듭짓기 위해선 조기에 학과 개편 논의를 마무리 짓고 내부 공간 및 시설 확장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동문회 측은 현 체제를 흔들 경우 이설 반대 운동에 나서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동문회 측은 최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전국 최초 국립예술고인 광주예술고 학과 통폐합을 막아달라. 국악·한국화과를 살려달라”는 글도 올렸다. 29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이날 초 ‘광주예술고 이설부지 활용 및 발전방안’이라는 용역 최종보고회를 열었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주예술고가 옮겨갈 부지 활용 방식과 학교 발전 방안을 위한 용역 결과를 내놓는 자리였다.

관심은 용역결과에 담긴 예술고 발전 방안의 하

나인 학과 개편안(재구조화)에 쏠렸다. 첫 번째 안으로 현재 국악·음악·한국화·미술·무용과 체제의 5개 학과 대신, 음악·미술·무용 3개 학과로 개편하자는 방안이 제시됐다.

이유로는 국악과의 경우 음악과 아래, 한국화과의 경우 미술과 아래 전공의 하나로 두는 게 예술계 계상 적합하다는 해를 거듭할 수록 이들 학과 입학생들이 줄고 있다는 점이 거론됐다.

두번째로는 현재의 5개 학과를 그대로 유지하자는 방안이 담겼다.

동문들은 크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악·한국화과를 없애선 안 된다는 것이다. 이들은 광주예술고의 모태인 남도예술학교가 1983년 개교 당시부터 남도예술의 뿌리라 할 수 있는 국악·전통미술(한국화)로 시작됐고, 학교설립 취지 역시 ‘남도의 전통 예술의 맥을 계승·발전시킨다’라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광주예술고가 국립고교라는 점을 들어 ‘관리의 효율성, 현대사회 시류에 편승해 전통예술교육을 보호하기는커녕 고사시키려한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동문들의 강한 반발을 두고 일각에서는 “교수 등 일부 동문이 기득권을 지키려고 한다. 대학 신입생 모집, 제2 취업 기회 축소, 예술계 영향력 축소 등을 걱정할 게 아니냐”는 해석도 나오지만 동문회 측

은 선을 긋고 있다.

광주예술고 출신의 김종경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교 교수는 “경제논리, 시대흐름에 따라 학과 통·폐합을 결정해선 안된다. 철학과의 취업이 안된다고 대학에서 퇴출시키는 것과 한국화과, 국악과를 다른과와 통·폐합 하는 것이 무엇이 다르냐”며 “학과 통·폐합을 강행할 경우 학과 통·폐합 반대가 아니라, 학교이설 자체를 반대하는 운동을 동문들과 벌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광주예술고 김원익 교장도 “동문들과 입장이 같다. 우리 전통예술이 가장 세계적이고 언젠가는 크게 주목받는 날이 올 것으로 믿는다. 시교육청이 현명하게 판단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육청 관계자는 “동문들이 학과가 사라지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학생을 우선에 두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늦지 않게 결정을 내리겠다”고 말했다.

광주시 북구 운암동에 있는 광주예술고는 부지 1만4002㎡, 연면적 8071㎡ 규모로 5개 학과 405명이 재학 중이다. 전국 최초 국립 예술고로 건물이 노후되고 부지가 협소해 전공별 실기실 확보 등 예술 교육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광주시 북구 중외공원 인근의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3만6938㎡)로 이설을 추진하고 있다. 사업비 규모는 830억원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지하철역 피서 광주시 동구 금남로 4가역(도시철도)에 마련된 무더위 쉼터에서 어른들이 장기와 바둑을 두며 한바탕 더위를 식히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취업사기’ 기아차 노조 간부 도피 도운 경찰 간부 영장 기각

‘취업 사기’로 수배된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전 노조 간부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는 경찰 간부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9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범인도피 혐의로 여수경찰서 김모 경정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지난 27일 기각했다.

법원은 김 경정이 혐의를 인정하고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점을 기각 사유로 든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정은 지난 1~5월 기아차 광주공장에 취업 시켜주겠다고 속여 29명으로부터 19억원을 받아 쟁건 혐의(사기)로 수배 중이던 전 노조 부지회장

황모(48)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친구인 황씨를 대신해 도피 장소로 사용한 원룸을 직접 얻어준 것으로 조사됐다.

김 경정은 황씨와 수차례 통화한 사실을 확인한 경찰이 황씨 행방을 추궁하자 고의로 이를 알려주지 않아 수사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김 경정과 황씨 사이에 수차례 돈이 오간 사실을 확인하고 대가성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황씨는 경찰수사가 시작되자 지난해 12월부터 서울, 순천, 목포 등지를 돌아다니다가 지난 1월 여수에 원룸을 얻어 은둔했다. /박진표 기자 lucky@

“대학역량 진단평가 지역 특수성 반영하라”

광주시의회 성명 “발전 가능성 있는 지방대학 2차 평가서 구체해야”

광주시의회는 29일 성명을 통해 “교육부는 대학 기본역량 진단평가에 지역 특수성을 반영하라”고 촉구했다.

조선대와 순천대 등은 최근 교육부 1단계 평가에서 우수대학(자율개선대학)에 포함되지 못한 2단계 평가를 받고 있다.

시의회는 “교부의 대학기본역량 진단 1단계평가 결과 자율개선대학으로 선정되지 못한 40여개 일반대학 가운데 87.8%가 지방대학으로 드러났다”며 “교육부의 획일적인 평가에 지역 특수성이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결과로, 이는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켜 지방분권과 지역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역행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번 2단계 평가에서 교육부는 지방분권시대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며 “이번 심사에서 빠진 연구관련 평가항목과

지역사회 기여 등을 고려한 종합적인 판단을 통해 조선대와 같이 발전가능성이 있는 지역대학은 자율개선대학으로 최종 선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의회는 이어 “조선대도 최근 발표한 구조개혁 5대 원칙과 경영혁신 3대 원칙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며 “조선대는 7만 2000여명이 기금을 모아 설립한 민립대학이자 72년의 역사를 지닌 광주와 호남의 대표 사학이다. 이번 기회를 바탕으로 지역발전 선도하는 대학으로 새롭게 거듭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조선대는 고강도 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골자로 한 구조개혁에 착수했다. 조선대는 지난 24일 긴급 교무위원회를 열고 ‘대학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경영혁신 3대 원칙’을 확정했다. 재정·조직 슬림화 등으로 155억여원을 감축하겠다는 강도 높은 개혁 안이다. /윤영기·오광록 기자 penfoot@

5·18단체 “기무사 계엄령 문건 배후 밝히고 책임자 처벌해야”

5월 3단체와 (유족회·부상자회·구속부상자회)와 5·18기념재단이 국군 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 작성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29일 “기무사의 ‘계엄령’ 문건은 제2의 5·18을 보는 것 같아 놀랍고 충격적”이라며 “기무사는 우리 역사의 중요한 시기마다 쿠데타와 국

민 사찰 등의 악행을 저질러 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계엄령을 모의한 것은 쿠데타와 닮아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들은 “이번 사건을 통해 5·18 진상규명이 왜 더 철저하고 확실하게 이뤄져야 하는지를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고 강조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제8회 아로마라이프배

무등기 광주·전남 사회인 야구대회

2018년 9월 2일 ~ 11일

광주·전남 지역 지정구장

매주 토, 일요일 경기진행

각 토너먼트의 선수 구성

(1) 무등 토너먼트 : 선수출신 등록할 수 있으며 선수로는 1명만 경기에 참여할 수 있음(단 투수·포수 금지)

- 주민등록상 45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 (197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2) 광일 토너먼트 : 선수출신 등록할 수 있음 (단 선수로 경기 참여 불가능)

- 주민등록상 45세 이상은 비선수로 인정 (1974년 1월 1일 이전 출생자)

시상

(1) 각 토너먼트 우승, 준우승, 공동3위

(2) 최우수감독상

(3) 최우수선수상

(4) 우수선수상

(5) 최우수심판상

※자세한 내용은 대회 홈페이지를 참고바랍니다.

<http://www.kwangju.co.kr>

문의 | (062)220-0541

주최 | 광주일보 · (사)아시아문화

주관 | GBSA 광주광역시야구소프트볼협회

오늘의 날씨

해돋이 05:40 해질 21:11
해진 19:38 달진 07:32

절금 비 소식
대체로 흐리고 오후 한때 비가 내리겠다

광주	흐리고비	26/35	보성	흐리고비	24/31
목포	흐리고비	26/34	순천	흐리고비	27/33
여수	흐리고비	26/31	영광	흐림	24/35
나주	흐리고비	25/34	진도	흐리고비	25/33
완도	흐리고비	26/32	전주	구름많음	26/35
구례	흐리고비	24/33	군산	구름많음	25/35
강진	흐리고비	25/33	남원	흐림	25/35
해남	흐리고비	24/33	흑산도	흐림	25/31
장성	흐림	24/34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남부	앞바다	북~북동	0.5~1.5	북동~동	0.5~1.5
	먼바다	북~북동	1.5~2.5	북동~동	1.5~2.5
남해서부	앞바다	서~북서	1.0~2.0	북동~동	1.0~2.0
	먼바다(동)	서~북서	2.0~3.0	북동~동	1.5~2.5
	먼바다(서)	서~북서	1.5~2.5	북~동동	2.0~3.0

◇ 물때

		간조	만조
목포		09:06	03:47
		21:02	15:47
여수		04:29	10:24
		16:21	22:55

◇ 주간 날씨

31(화)	8/1(수)	2(목)	3(금)	4(토)	5(일)	6(월)
☁	☀	☀	☀	☀	☀	☀
26/36	25/37	25/36	25/36	25/35	25/35	25/35

◇ 생활지수

- 경고
- 높음
- 중음